§§

海外情報

○ 미국 IMC, 7월 후반부터 인비공장 휴업 및 생산 중지

업계측에 의하면 미국 IMC Global은 루이지아나주에 위치한 도날드슨 인비공장을 7월 후반부터 전면적으로 휴업, 생산을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중지하고 재개할지는 확실치 않다. IMC 도날드슨 공장은 동사의 뉴웰즈 공장(플로리다주)과 같이 주력 공장의 하나로 DAP, MAP의 생산이 230만톤에 달하고 있다.

IMC는 이 공장에서 인비 생산을 중지한다고 지난주에 발표하였지만 언제부터 어떤 제품을 중지하고 일정한 추가 감량인지, 전면 휴업인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측이 지난 주말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동 인비공장은 7월 후반부터 전면휴업이라는 것은, 인산질비료 시장 상황의 개선 대책이 정상에서 벗어나 공급을 줄여 느슨한 수급을 균형화하여 가격인상의 방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산 조정대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대책인 것이다.

IMC는 인산질비료의 수급 시장 상황을 위해 작년 11월에 도날드슨 공장들을 중심으로 대담한 생산조정 대책을 명확히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도날드슨 공장의 인산액(생산능력 57만 성분톤) 생산을 중지, 2000년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DAP, MAP(생산능력 230만톤)의 생산을 1/3로 줄이고(76만톤의 해당량) 시장이 회복할때까지 계속한다. 세 번째로 플로리다주 리콜스 공장의 인산액(25만 성분톤)과 DAP, MAP(55만톤) 생산을 무기한 중지하고 장래에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동 주에 있는 뉴웰즈 공장의 중과석(40만 성분톤) 생산을 영구적으로 중지하고 폐기한다. 다섯 번째로 댑트 공장의 인비(생산능력 100만톤)를 장기간 중지하여 2000년까지 재개하지 않는 것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하였었다.

이번에는 새로이 대형공장인 도날드슨의 인비 생산을 전면 휴업하는 추가 조치를 명확히 한 것으로 수급 · 시장 상황의 장기적인 혼미에 대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

로 보여지고 있다.

도날드슨 공장의 인비 생산 전면중지로 IMC의 인산관련 공장은 플로리다의 뉴웰즈 공장 (260만톤)만 남겨둘 뿐이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7. 3 >

○ 미국 IMC의 생산조정과 미국 DAP 시장 상황

미국 IMC Global이 7월 후반부터 루이지아나주의 도날드슨 인비공장을 휴업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에서는 이 휴업으로 혼미가 장기화되고 있는 DAP 등의 수출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혼미에서 이탈하여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미국 DAP의 가격은 작년 가을의 IMC 등 메이커의 과감한 감산대책으로 공급을 제한한데 따른 저조한 시세하락이 계속되다 그후 약간의 개선이 있었을뿐 완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호주나 인도등의 메이커가 신규로 생산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또한 러시아 제품등이 시장에서 매출을 활발히 하여 수급면에서 미국제품의 가격회복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IMC가 주력 생산거점인 도날드슨 공장(생산능력 230만톤)을 전면 휴업하고, 수급 · 시황의 발본책을 결정, 바닥시세에서 벗어나서 시황 개선책을 명확히 한 것으로 DAP의 수출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초점이 된다.

작년 가을의 IMC 등의 인비생산 리스트 등에서도 가격동향이 초점이 되었으나, 인도 등 메이커의 신규 생산의 움직임과 러시아 제품 등의 시장 투입 공세로 인하여 좌절, 개선되지 못했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바닥시세와 가격상승으로 연동되는가가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측에서는 미 DAP 등 인비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품절이고, 공급측은 이것을 호재로 구입측에 가격인상의 조짐이 있고 현재 몇 달러 정도의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7. 4 >

§§

○ 미국, IMC 효과에 의한 DAP가격 인상

미국의 DAP 수출가격이 최근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를 경계로 15$에서 20$까지도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량 메이커인 IMC 발표 후 인비의 대폭적인 감산효과에 더하여 파키스탄의 DAP 준비작업 시동과 호주, 인도의 신규 공급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은데에 있다. 미국 DAP 가격은 IMC가 7월 후반부터 도날드슨 공장의 대형 인비 공장에서 생산을 휴업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바닥 시세 후 저미 기조를 급격히 탈피하고, 공급 과다의 와중에서 상승 국면으로 변화되었고, 이 결과 실제 저가 선에서 4~5$ 정도가 인상되어, 공급자측 주장으로는 1$ 이상의 인상 제시가 이루어져, 시장은 상승이 통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가격은 이러한 주장이 가격인상의 연장으로 연일 급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시황은 15$에서 20$까지 급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때의 FOB 200$의 고가 도달에는 아직 멀었지만, 이런 가격인상의 기세가 연속되면 머지않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속등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 업계측에서는 호주나 인도의 신규 인비의 생산 ·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7. 17 >

○ 일본의 동남아 시장에 대한 황산암모늄 수출 방침

카프로락탐의 생산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관련상사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황산암모늄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어측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황산암모늄을 출하하는 메이커측은 엔고에 의한 실 수당이 줄어들긴 하였어도 공급여력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의 의지가 있으나, 바이어측은 공급과잉의 상태에서 가격상승은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태도로, 관련상사는 가격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00년도(일본 비료년도 12비)에 들어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한 황산암모늄의 수출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나 카프로락탐의 생산증가가 1999년도(일본 비료년도 11비)를 기준하여 177만톤 정도로 추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

12 비료년도는 아직 시작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단지 예상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재 12 비료년도의 카프로락탐 및 황산암모늄의 생산은 경기의 회복에 있으므로, 11 비료년도의 기조에서 본다면 큰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황산암모늄의 내수는 농업 전반의 악화 연속으로 프러스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황산암모늄의 생산증가는 수출로 전환이 필연적이다.

11비의 황산암모늄 수출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생산이 177만톤으로 추정된 것과 관련하여 100만톤이 초과한 근년에 없는 기록적인 수량으로 예측되고 있고, 12비도 카프로락탐의 생산기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재고의 보유방법에 의하지만 이와같은 수출수준에 근접한다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관련상사는 수출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황산암모늄 수출의 관계상사는 삼릉상사, 삼정물산, 가우상사, 일상암정, 환홍, 이토우상사, 동서무역, 니찌엔 등으로 이들 상사는 말레이지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을 주체로 제2 시장을 스리랑카, 엘사바도루로 또한 피지, 기타 국가로 향한 수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12비 수출에서는 계속하여 이들 시장으로 향한 작업이 적극적인 투입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 그 경우 메이카측의 가격 인상 의향에 대하여 구주, 러시아, 한국의 수출 공세등 과잉공급의 현상이 일어나 가격은 약세의 기조를 엿보이고 있어 바이어측에서도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태도가 아니다.

메이커와 바이어 사이에 있는 상사로서는 수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메이커에 따라서는 금년 3/4분기(7-9월)의 가격은 인상방침으로 상사측에 제시하여 협상에 들어가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7. 7 >

○ 동남아에 대한 황산암모늄의 수출가격

일본업계의 당면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민간무역 황산암모늄 수출가격은 지금까지 보합수준으로 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이 짙어지고 있다.

§§

요소의 국제가격이 착실히 인상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수요도 또한 적당하므로 황산암모늄 수출 가격의 약세 하락이라는 관측은 최근에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동남아에 대한 황산암모늄 수출 가격은 구주, 러시아 제품이 나와서 공급 과잉이고 이것에 더하여 곧 한국, 대만 제품의 신규 공급 증가가 전열에 끼어들면 공급과잉은 확실하다.

여기에 요소 시황도 장기 저미 지속이어서, 황산암모늄에서 요소로 대체하는 요인도 있으므로 가격은 보합에서 가격 인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 최근의 상황은 어쨌든 변한 것 같고, 당분간 가격 인상은 고사하고 보합 수준에서 결정되어, 인하는 생각 할 수 없다 "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요소의 시황이 최근 1~2개월 사이에 회복하여 상승하고 있고, 원산지에 따라서는 40-50$도 뛰어오르는 급등 상황이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황산암모늄 가격의 하락은 완전히 하락이 방지되어 보합의 견해도 취소되고 있다는 것과 요소 가격의 인상으로 요소에서 황산암모늄으로의 역 대체도 있을 것으로 보여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구주나 러시아 제품등의 투입 공세도 진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

이런 견해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황산암모늄 수출가격은 약세 국면이 없어지고, 당분간은 " 보합 "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수준에서 얼마동안은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소 시황의 향방 여하에 따라 " 상승 수준 "으로 변한다는 견해도 있다.

동남아로 향한 황산암모늄 수출가격에서는 메이카측이 3/4분기(7-9월)분으로 가격 인상을 제시하고 있고, 바이어와 메이카 사이에 끼어 있는 관련 상사는 과잉 공급 속에서 약세임으로 가격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정세 하에서는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며 얼마동안은 보합으로 나가면서, 요소의 시황 여부에 따라서 가격인상의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8. 4 >

○ 대만, 황산암모늄 수출

관련업계에 의하면 대만의 황산암모늄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년간 20만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지금까지 겨우 년간 4-5만톤 이었으나, 신규 카프로락탐 설비가 완공되어 6월부터 가동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카프로락탐의 설비는 중국석유화학개발공사(CPDC)의 1계열 증설이고, 황산암모늄 생산능력은 17만톤, 동사 기존설비 황산암모늄 생산은 2계열(1계열 9만톤)로 18만톤의 능력이었으나, 이것에 17만톤을 추가하여 35만톤이 되었다.

이 황산암모늄은 대만비료공사(TFC)가 고가의 합성품을 축소하기 위함이고, 일부는 흡수될 예정이었는데, 황산암모늄이 생산증가로 국내 내수 충족은 물론 수출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동 소식통은 년간 적어도 20만톤정도는 수출로 처분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출에서는 당연히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투입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 대륙을 향한 판매가 기대되지 않는 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제품을 포함한 제3국의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7. 10 >

○ 요소의 국제시장 동향

요소의 국제시황은 현재 계속 강세기조로 옮겨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중동, 러시아 제품 등 한결같이 FOB 118-12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의 110-115$보다 수 달라에서 그 이상의 상승세로 변하고 있다.

이 기조로 가면 FOB 120$보다 더 높은 가격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측에 의하면 최근의 요소 시황은 인도네시아 제품 뿐만아니라 중동, 러시아산 제품등이 일제히 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플랜트 트러블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이며, 중동이나 러시아 제품도 대외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듯, 요소시황은 대체로 FOB 120$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하다.

다른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해외 요소의 가격상승은 요컨데 공급이 타이트한 감이 증폭

되고 있기 때문이고, 시급을 요하는 처방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요소 공급의 타이트한 감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잉 공급 중에서 해외 수요국의 큰 거래나 대책이 없는 현상에서 의문이 생기고 있고, 이는 최근 시황의 강세가 좀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시황이 실제로 FOB 120$대에서 더 상승으로 향할까? 아닐까? 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인도의 금년 후반기 50만톤에서 60만톤의 구입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130만톤을 수입한다는 관측 등도 요소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게 만들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 7. 13 >

♣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루를 사흘로 통용한다.

< 영국속담 >